

지역 매아리

고창군, 귀농 홍보 활동 펼쳐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A FARM SHOW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1번지 고창군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방문이 어려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귀농귀촌 정책 안내, 고창 농특산물 전시 등이 진행됐다.

고창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귀촌 상담, 교육프로그램, 임시거주시설, 지원정책 등 필수 정보를 제공했다. 또 귀농 선배로서 겪었던 시행착오, 농촌지역 적응의 어려움 극복방법 등 현실적인 조언으로 많은 도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오는 27~28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로 도시민에게 고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따르면 고창군은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귀농인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곳 1위로 발표되어, 수많은 예비귀농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보건소,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발령

정읍시보건소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벌초,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빈번한 시기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쯤쯤가무시증, 라임병 등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부터 11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쯤쯤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철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발열과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으며 물린 자리에는 검은 딱지가 생긴다.

라임병은 진드기 노출 후 약 1~3주 후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원상성으로 퍼져가는 특징적인 유주성 홍반이 나타난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한다. 농작업이나 벌초 등 야외 작업 후에는 입었던 옷을 집 밖에서 털고 세탁하며 즉시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후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성장 동력산업 선도한다

부안군, 수소연료전지산업 플랫폼 구축 가속화

부안군이 수소연료전지산업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도 수소산업 육성 중앙기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물론이고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과감한 투자와 적극행정으로 민선7기 미래 전략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산업 플랫폼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일 열린 9월 중 월례조회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

는 새로운 길의 선점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길은 분명 두렵고 험난하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어려움을 각오하고 새로운 길로 갔을 때 부안군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 할 것이다.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가속 페달을 밟아 정부와 전북도의 수소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부안군이 선점하자"고 강조했다.

실제 부안군은 국도비 153억원 등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수소 차량용 연료전지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를 건립 중이며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옛 부안군수 관사를 활용한 건물용 SOFC 연료전지 실증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도비 27억원을 확보해 전북에서 4번째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분자연료전지 지원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선점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수소연료전지산업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추석 명절,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풍성하게 보내세요"

고창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살리기-고창사랑상품권'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난 7월 발행한 고창사랑상품권이 현재까지 6억 원이 판매되면서 판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군내 1600여 개맹점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가능하다. 5%할인된 금액으로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없어서 군민과 상인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읍내 식당과 카페, 상점 등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현재 읍성과 박물관 유료 관광객에겐 입장료 중 2000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장 회의 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고창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히 전북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 29억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사랑 상품권이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군을 비롯한 관내 모든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가 울려서 고창사랑 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고창군은 종이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훈단체,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현장 방문... 활성화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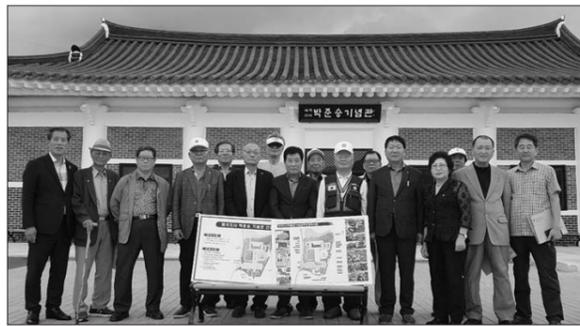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의 개관을 앞두고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보훈단체 회장단과 사무국장 20여 명은 박준승 기념관의 건립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5개 테마(환영의 존, 발견의 존, 만남의 존, 감동의 존, 체험의 존)로 구성된 기념관 내부 전시시설을 견학하며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의 공적을 되새겼다.

이어 보훈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뜻깊은 기념관을 먼저 견학할 수 있게 해준 정읍시에 감사하다"며 "기념관 건립에 따라 애국지사 박준승이 재조명되어 후대에 그 뜻



정읍시가 최근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의 개관을 앞두고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 전승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은 11월 중 개관을 목표로 현재 외부화장실 증축공사와 기념관 주변 담장 설치, 조경공사(무궁화동산, 한반도 조경, 데크계단 등)등 기념관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박준승 선생의 숭고한 가치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2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부안고려청자 등 도자기 5점을 기증한 김원철 선생에게 기증패를 전달했다.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공유'

부안군, 부안고려청자 기증 김원철 선생 기증패 전달

부안군은 2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부안고려청자 등 도자기 5점을 기증한 김원철(전 부안문화원장) 선생에게 기증패를 전달했다.

김원철 선생은 교육자로서 부안문화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지역 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공헌했으며, 부안의 역사 자료를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날 김원철 선생이 부안군에 무상 기증한 작품은 모두 5점으로 800년 전 부안에서 제작한 고려청자 발과 조선백자 발, 근대 기와에 무늬를 찍었던 틀 등 학술연구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원철 선생은 유물을 기증하면서 "천 년 전 부안의 찬란했던 고려청자 문화가 부안청자박물관을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유물을 기증함으로써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기증패를 전달하며 "평생을 소중히 간직했던 귀중한 부안고려청자와 여러 점의 도자기를 부안군에 기증하여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공유를 몸소 실천하신 김원철 선생의 숭고한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안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잘 보존하겠다고"고 감사를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활 속 걷기운동으로 건강 챙겨요"

정읍시, '워크온' 구축 협약식 가져

정읍시가 범시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일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이하 워크-온)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워크-온'은 생활 속 걷기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 건강걷기 실천을 향상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크-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정읍시 전체 사망원인의 10개 항목 중 8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은 만성질환이다. 또 최근 5년 연속 정읍시민의 비만율이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과 비만을 감소에 효과적인 걷기운동 확산을 위

해 '워크-온'을 통한 걷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고 '1530 워킹 정읍! 건강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워크-온'은 매일 이벤트를 개최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우수한 활동을 한 걷기동아리나 걷기 목표를 달성한 개인에게 걷기용품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업체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다 함께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걷기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파트와 사업체에 건강 계단 설치와 걷기운동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여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힘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gift set,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